

[환경]

광주비행장 전투기 소음 심각… 어떻게 풀 것인가



전국 15개 공항 중 광주공항의 평균 소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애까지 일으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이동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nja@kwangju.co.kr

“피해 보상법 제정·방지 대책 마련 시급”

광주시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전투기 등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고 있으며, 청각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용기도 같이 운항하는 광주공항의 경우 전국 15개 공항 중 평균 소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음·진동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녹색연합은 8일 오후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강당에서 ‘군 소음 피해 현황과 해법 마련을 위한 광주 지역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1전투비행단 관계자와 조선대 예방의학과 강명근 교수,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정연경 사무국장이 각각의 주제로 발제를 하며 되며 광산구 의원과 주민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열게 된다.

이날 강명근 교수는 ‘광주시 광산구 미군비행장 인근 거주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균 소음 86㏈를 15개 공항 중 최고 인근 주민들 스트레스·청각장애 호소

강 교수는 공군 비행기의 이착륙 및 비행훈련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 있는 지역(광산구 신촌동·우산동)의 주민(노출군)과 소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광산구 삼거동·신동)의 주민(대조군) 126명을 선정해 조사했다.

그 결과 노출군의 주민은 대조군의 주민보다 많게는 20배 가량 소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스트레스도 두 배가량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로 또한 노출군 주민이 40% 가량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청력 손실도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출군의 주민은 소음으로 인해 시끄러움을 느끼거나 ‘성가시다’ ‘짜증난다’ ‘집중이 안된다’ ‘능률이 떨어진다’ ‘업무가 중단된다’ 등에 대한 반응이 대조군

보다 2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노출군 지역 주민들이 소음 성 낮침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 지역 주민들의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정연경 사무국장은 이날 ‘군용 비행장(등) 소음 법률(안)’의 내용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게 된다. 정 사무국장은 발제문에서 “현재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1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안보라는 이유로 주민들은 민원조차 제기

하기 어려웠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향상됐지만 군 비행장 인근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항공기 소음도 분석결과 전국 15개 공항 중 광주공항의 평균 소음도가 86㏈을 (WECPNL·항공기 소음의 시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공항 인근인 광산구 우산동이 91㏈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음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도 예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12일 광산구 신촌·송대·우산동 등 광주공항과 가장 인접한 지역 취락지 주민 781명이 국기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처음 제기하면서 쟁법소송은 2005년 5월 19일에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주민 1만8천 503명이 광주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같은 해에만 5건의 소송이 이어져 현재까지 7만여명이 9건의 소송을 낸 상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생물종 3분의1 멸종 위기”

기후변화회의…지구온난화 대처·생태계 복원 경고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제성장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상의 생물 종 가운데 최고 3분의1이 멸종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동한다”면서 “이들은 자신의 서식지 주변에 세워진 수많은 맵과 개발지, 기타 인위적 장애물을 피해 팔자적으로 살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는 동물들을 위해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들의 생사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어류 및 야생생물보존위원회(FWRI) 주최로 열린 기후 변화 회의에서 야생동식물보호협회(DoW)의 진 브레너 박사는 “현재 나와있는 기후 전망은 대부분 우울하고 절망적이다. 한가지 희망은 아직 행동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로리다주는 미국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주로, 북미 유일의 살아있는 산호 보조와 최소한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품은 에버글레이즈 습지가 있는 곳이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기후전망 보고서 집필자인 2007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브레너 박사는 “동식물들은 자신에게 가장 이상적인 기후를 좇아 이동한다”면서 “이들은 자신의 서식지 주변에 세워진 수많은 맵과 개발지, 기타 인위적 장애물을 피해 팔자적으로 살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는 동물들을 위해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들의 생사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 지질탐사단의 수석 과학자 버지니아 베켓은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극단적 기후와 산불, 폭풍, 해일, 외래종 침입 등으로 동식물의 서식환경 전체가 변화하게 된다면서 이미 일부 동물 종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포유류 수난시대 왔다

국제자연보존연맹 보고서

4분의1 멸종…亞동물 심각

포유류는 세계 과파와 사냥 때문에 지구상의 포유동물 종 가운데 절반은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4분의1은 멸종 위험을 받고 있다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최신 보고서가 발표됐다.

IUCN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최신 ‘적색 리스트’를 통해 “포유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현상은 아시아의 육지 포유동물에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과학자 1천700여명이 참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가 확보된 4천61종의 포유동물 가운데 1천139종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중에서도 영장류와 해양 포유동물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아시아의 영장류는 80% 가까이가 멸종 위협을 받고 있다. 836종의 포유류는 자료조차 없는 상태이다.

호주의 유대류인 태즈메이니언데빌과 카스피해의 물개, 아시아의 고기잡이살쾡이 등은 극히 서식환경이 더욱 악화됐다”면서 “북미의 어린 참치들이 지중해에 몰릴 경우 포획률이 높아 고향으로 살아 돌아온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중해에서 잡히는 어린 참치들의 출발지가 어딘지 밝히는 것이 다음 연구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식환경이 악화돼 멸종위기에 있는 아시아의 고기잡이살쾡이(위)와 카스피해의 물개.

보고서는 서식지 파괴와 사냥이 포유류에겐 단연 최악의 위협이지만 북극곰처럼 해빙에 의존하는 종들은 온난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포유동물에 초점을 맞춘 것 이지만 일부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 4만4천838종의 조사대상 동식물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1만6천928종이 멸종 위기밖에 남지 않은 이베리아 산양과 지난 40년 간 단 한 차례도 눈에 띠지 않은 쿠바의 설치류 허타이가 꼽혔다.

/연합뉴스

“어린 참치들 대서양 양끝 왕래”



미 사이언스지 “지중해로 몰릴 때 생존률 낮아져 문제”

대서양 양끝에 사는 참다랑어들이 청소년기에 한 곳에서 섞여 지내는 것으로 밝혀져 참치 어로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과학자들은 사이언스지 최신호에 실

린 연구보고서에서 북미와 지중해의 참다랑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번식을 하지만 어린 시절엔 먼 거리를 헤엄쳐 와 같은 지역에서 섞여 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따르면 북미 어선들이 탑내는 학자들은 참다랑어의 내이(內耳) 속 평형

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 이들의 원산지를 밝혀냈다.

이들은 “어린 참치들은 ‘물고기들이 대서양 고유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로 관리의 전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북미의 어린 참치들이 지중해에 몰릴 경우 포획률이 높아 고향으로 살아 돌아온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중해에서 잡히는 어린 참치들의 출발지가 어딘지 밝히는 것이 다음 연구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9人の公人種が死んでいる“アルマゲドン”

법원 경매 전문도우미

대표 362-6001, 무료상담 080-090-4989

토지 - 광산구 신촌동(1층 일반주거지역) 1115㎡ 1억5600 1억900 광산구 신월동 담 3269㎡ 3억5900 2억5100 광산구 연산동 담 1498㎡ 3180 2200

상세내용은 광주일보 광주부동산에 실렸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광주일보 광주부동산에 실렸습니다.